

중기·소상공인 대출 연장 전체 금융권 확대

이자 납부 유예도...5조5000억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에 1.5%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공급

정부,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사상 처음으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에 모든 금융권이 동참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비상금융 조치를 내렸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비상금융 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2조

7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돼왔던 해당 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한다.

또 기업은행이 담당해 중간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5조8000억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상 8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나머지 3조5000억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1.5%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대출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도입, 은행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한다. 보증요율도 1% 이하

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총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대출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강화한다.

대출만기 연장과 관련해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 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해 금융권 전체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에 대한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해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채권·주식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보증권, 즉 프라이머리 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적인 방안과 규모를 비롯한 비상금융 조치 세부계획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457.64 (-133.56) ↑ 금리(국고채 3년) 1.19 (+0.14)
↓ 코스닥 428.35 (-56.79) ↑ 환율(USD) 1285.70 (+40.00)

광주·전남 2월 수출 7.7% 감소 31억9000만달러

코로나19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2월 수출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31억9000만 달러에 그쳤다.

무역수지 역시 2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6500만 달러보다 36.9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전년보다 8.5% 감소한 3억40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중국산 부품 재고 부족으로 생산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출물량이 축소했다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또 반도체는 전년보다 11.2%나 감소한 2억6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D램 가격 상승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구매 보류 건이 발생한 탓에 수출 부진을 겪었다.

전남의 주력 수출 품목들도 줄줄이 감소세를 보였다.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은 지난해 선박류 수출액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탓에 전년 실적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28.6% 감소한 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에 석유수요가 위축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수출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석유제품 수출은 12.4% 감소한 6억9000만 달러였다.

철강판도 수출선 전환 노력으로 수출 물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 여파에 따른 수요 회복 불확실성과 수출 단가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줄어든 2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는 냉장고가 중국과 일본 등 경쟁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에 대한 제품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수출 역시 5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고, 타이어드 4400만 달러로 16.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의 주력 수출 품목들도 줄줄이 감소세를 보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택시업계 할부금 상환 3개월 유예 현대차·기아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비스협력사 블루핸즈와 오토큐의 가맹금을 감면한 데 이어 택시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할부금 상환을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현대캐피탈 할부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법인택시는 현대캐피탈 할부 상품 및 현대·기아차 자체 할부 상품 이용 고객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이며 현대캐피탈 고객센터나 현대·기아차 전국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홈 트레이닝 인기 19일 ㈜광주신세계 레깅스 매장 '안다르'를 찾은 한 고객이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 트레이닝'을 위한 실내 운동복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대우유니아가그룹 가전브랜드 가치담은 '위니아라운지' 조성

대우유니아가그룹은 서울 강남구 선릉대우타워 2층에 위니아담채와 위니아대우 가전제품의 편리함과 가치를 소개하는 '위니아라운지'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 단장한 '위니아라운지'는 '웰컴라운지(Welcome Lounge)', '키친존(Kitchen Zone)', '리빙라이브러리존(Living-Library Zone)', '라운드리존(Laundry Zone)', '오피스존(Office Zone)'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위니아라운지 관계자는 "고객에게 위니아담채와 위니아대우의 제품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고객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 2528개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광주·전남 6개센터 인하 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가 2528개 입주기업에 임대료 10~50%를 이번 달부터 평균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초기 창업기업에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창업 인프라 시설로, 이번 달 기준 전국 259개 센터에 6270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6개 센터가 임대료·관리비 인하에 나서 152개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광주대비가 올해 입주한 12개 기업에 관리비 100%를 감면해 주기로 했

으며, 장성 전남생물산업진흥원나노바이오는 16개 입주기업에 3~4월 2개월간 임대료 50%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장흥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도 23개 기업에 3~4월 임대료 50%를 인하, 전남대 여수캠퍼스BI는 14개 기업에 7~12월 임대료 10%를 감면한다.

이밖에 목포해양대BI는 15개 기업에

4~6월 임대료 10%, 조선대BI는 72개 기업에 2~4월 임대료 5%씩을 감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내 창업보육센터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약 40%의 입주기업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운영해 왔음에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고통을 함께하자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개월 무이자 기간에 2.4%~4.4%로 저금리 대출
- 저금리대출과 상환은 거래은행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 저금리 대출 상환은 거래은행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 저금리 대출 상환은 거래은행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 저금리 대출 상환은 거래은행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 저금리 대출 상환은 거래은행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 저금리 대출 상환은 거래은행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정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청단지점 576-4150